

# 공간행태적 측면에서 본 퇴계의 ‘敬’사상과 도산서당 공간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nterrelation between Toegye’s ‘Piety’ Notion and Space of the Dosan Saudang  
from an Behavioral point of view

안민선\* / Ahn, Min-Sun  
권영걸\*\* / Kwon, Young-Gull

## Abstract

A built space reflects its society’s philosophy, culture and technology of its time period. The study explores interrelation between Toey-Gae’s “Kyung” (Piety) philosophy and architectural designs of the “Do-San” Sau-Dang (School).

Toey-Gae is a leading scholar during Chosun Dynasty who built the Do-San School to teach and showcase Sung Confucianism. He is known for his teachings and practice of “Kyung” philosophy in all aspects of his life including his work and designs. It is also known that he personally picked and purchased the land best suited to display spirit of “kyung” philosophy while directing the bas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His attentions to details are evident in his choice of city, building site, and way he arrange his designs within the natural environment. Thus, we can safely presuppose the design of Do-San Sau-Dang was created following Toey-Gae’s ideology in its buildings and environment.

By examining Toey-Gae’s philosophy of “Kyung” through his writings, physicallocation and actual designs of Do-San Sau-Dang, we can understand how this ancient philosophical ideology and thoughts were translated to a physical form and its space. The study will also explore the importance of such ideology in the society at the time and how it influenced physical and mental activities of its people.

키워드 : 퇴계 이황, 도산서당, 敬사상, 공간행태, 상관성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구축된 공간은 그 시대의 사상, 문화 그리고 기술 수준을 반영하는 산물이다. 시대적인 배경과 사상을 통해서, 그것을 구현해낼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공간은 구축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재하고 있는 사상과 시대적 배경의 이해가 중요하다. 본 연구는 공간행태적 관점에서 퇴계의 ‘경’사상과 조영되는 과정에서 그것이 발현된 도산서당의 상관관계를 밝히는 논문이다.

퇴계는 儒學을 통해 조선중기 사상의 근저를 마련한 성리학의 대표적인 학자로 그의 ‘敬’사상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여 왔다. 도산서당은 서원의 건립과 운영에 관여하여 많은 영향을 끼친 퇴계가 계획하고 설계하여 건축된 곳이다.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지어진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대지를 구입하고 건물의 기본적인 개념을 마련하고 건축을 지휘한 것으로 퇴계의 직접적인 건축관이 반영되어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산서당은 퇴계의 ‘敬’ 사상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도산서당에 실천적 개념인 ‘敬’사상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고 이를 행태적으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건축 공간디자인의 피상적 이해를 넘어서 도산서당의 양식상의 특징과 공간 행태적 특성을 퇴계의 사상적 배경과 연결 지어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에 도산서당에 대한 연구<sup>1)</sup>가 선행된 바 있으나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퇴계의 ‘敬’사상이 서당공간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행태를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는지에 대한 관점에서 분석한 논문은 부족하였기에 본 논문의 의의가 있음을 밝힌다.

\* 정희원, 서울대학교 대학원 디자인학부 공간디자인전공 석사과정

\*\* 정희원,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디자인학부 교수, 공학박사

1)박용재, 퇴계 이황의 ‘경’사상을 통한 도산서원 건축의 고찰, 강영모, 퇴계집을 통하여 본 도산서당의 조영적 특성에 관한 연구 등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사상적 측면과 그 공간 간의 상관관계 규명하고자 퇴계의 실천철학으로써 그의 공부론 전체를 집약하는 핵심 개념<sup>2)</sup>인 '敬'사상과 퇴계가 설계하고 건축한 도산서당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도산서당에서도 다른 건물은 제외하고 서당만으로 범위를 한정하였다. 도산서당은 퇴계가 거거한 도산서당과 그의 제자들을 위한농운정사, 역락서재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나 도산서당은 16세기 퇴계 생존시 건립된 건물이 큰 개조 없이 그대로 존속되어 온 것으로 판단되나<sup>3)</sup> 농운정사 등은 현재 모습도 그 당시 모습 그대로인지는 단정하기 어려우므로<sup>4)</sup> 퇴계의 건축관이 직접적으로 발현되어있는 도산서당을 중심으로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연구 방법으로 우선 문헌조사를 통해 퇴계 敬사상의 특성과 도산 서당의 공간적 특징을 살펴본다. 敬사상을 바탕으로 도산서당 공간과의 상관관계에 대해 실제 도산서당에 대입하여 봄으로써 행태적 측면에서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한다.

## 2. 퇴계 이항의 '敬' 사상

### 2.1. 퇴계 '敬' 사상의 특징

敬사상은 정이천에서 주자를 거쳐 퇴계에게 이어져왔다. 퇴계의 경사상중 특이한 점은 '이기호발(理氣互發)과 이발기수(理發氣隨)'의 이론을 주장, 인간의 본성에 작용하는 원동력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찾고 있다. 주자의 경우 역시 학문의 시작과 끝, 수양의 자세로서 敬을 중시하고 있으나 퇴계는 경을 존재론적, 인식론 적사고 전체에 一統하는 가치관과 핵심사상으로 '敬'을 강조하는 敬哲學을 정립하고 있다.<sup>5)</sup>

<표 1> '敬'의 인식과 개념<sup>6)</sup>

정이천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것을(主一) 경(敬)이라 하고, 이 하나(-)를 誠이라 한다." "성(誠)하면 경(敬)하지 아니함이 없고, 아직 성(誠)에 이르지 못하면 경(敬)한 연후에 성(誠)이 된다." "성(誠)은 천도(天道)요, 경(敬)은 인사(人事)의 근본이다. 경(敬)은 작용이니, 경(敬)하면 성(誠)이 된다."	경은 천도, 즉 성에 이르는 후천적 공부로서, 경에 의하여 一心の 誠을 표현하고 현현한다고 말할 수 있다. 곧 敬은 用功의 방법이 되고, 그 收功의 결과는 誠이됨을 의미함
주자	"경의 工夫之妙는 聖學이 成始成終하는 근거로서 모두 여기에서 비롯된다"	경을 공부의 착수처로 봄
퇴계	"이기호발(理氣互發)과 이발기수(理發氣隨)의 이론을 주장하여 理는 그 자체에 활동성을 지니고 있음으로 그 자체에 원동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理發을 긍정하고 心도 理를 가지고 있다고 여김으로써 持敬工夫를 통해 리발이 순조롭게 되고 심도 본래 가지고 있는 리를 지킬 수 있다고 보았다. 성은 본래 하나이지만 기질과의 관계 여하에 따라서 본연지성과 기질지성으로 구분된다고 하는데 이 본연지성과 기질지성 중에 인간은 반드시 본연지성으로써 천리의 보존을 강조하며 그 실천적 방법으로서 경을 제시하였다."	주자에 비해 퇴계는 持敬을 더욱 중요시 함. 이 점이 퇴계의 경학 사상이 성립하는 기본적 바탕이 됨. 인간의 인육을 먹고 천리를 보존하며 나아가 천인합일의 경지인 천도, 즉 성에 이르는 길은 오직 敬공부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여김.

2)양승무, 퇴계의 경학사상과 21세기, 퇴계학보 107.8, 2000.12

3)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p.28

4)퇴계가 이문량에게 보낸 편지에 정사를 도토마리제보다 개방된 형태로 구상하고 있다는 점과 영건기에 규모가 일치하고 있어 기본적인 실구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짐작될 뿐, 지금 모습이 영건 당시와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정기철, 17세기 士林의 廟寢制 인식과 書院 영건, 1999

5)양승무, 퇴계의 경학사상과 21세기, 퇴계학보 107.8, 2000.1 내용 정리

6)Ibid

퇴계는 '심은 일신의 주재이며 경은 또 일심의 주재(主宰)이다'라고 하여, 경은 일심의 주재이니, 반드시 경의 방법으로 해야함을 말하였다. 존양공부는 '靜'할 때의 공부라고 할 수 있고 성찰공부는 '動'할 때의 공부라고 할 수 있으며 경은 바로 이 존양성찰의 공부를 주재하는 것이다. 또한 학문을 함에 있어서 무사의 존양과 유사의 성찰 시에는 모두 주경을 해야 하니 "대체로 사람이 학문을 하는 일이 있거나 없거나 생각이 있거나 없거나를 막론하고 오직 敬을 위주로 해야 한다."라고 강조한다. 즉 퇴계에게 있어서 敬이란 일상생활에서 한 순간도 떠나는 안 될 존양성찰의 공부가 된다.

<표 2> '敬' 사상의 학문방법, 실천방법, 실천공부

敬 - 실천을 통한 眞實의 實得	학문방법	존심양성을 위한 내면적 수양공부 거경(居敬)	실천방법	존양(存養)	실천공부	정제업속
		격물치지를 위한 객관적 위학공부 공리(窮理)		성찰(省察)		주일무적
						상성성법
						물망물조

퇴계의 경학이란 오직 경의 실천 공부를 통해서 도덕적인 나의 주체성이 확립됨을 의미한다. 敬은 존양성찰의 공부로 완성 할 수 있는 것이요, 知와 行, 思와 學을 하나로 관통하는 인간의 본연적, 도덕적 주체성을 자각하는 방법이 되며, 거경과 공리를 근본으로 하는 聖學, 즉 聖인이 되는 학문의 始終이 되는 것이며 인간이 자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건립하는 길이 된다고 하고 있다.<sup>7)</sup>

생활 속에서 '敬'의 실천을 중요시해 온 것을 보아 퇴계가 지은 도산서당에는 그의 실천적 공부 개념인 '敬'사상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며 도산서당에는 그에 따른 행태 장치의 존재를 가설로 세울 수 있다.

### 2.2. 경학 사상의 실천공부와 행태적 특성

퇴계는 '前賢들이 敬을 해석한 것은 한결같지 않으나 자기 자신이 본 것을 형용하여 말한 것뿐인데, 어찌 다른 뜻이 있겠는가?'라며 敬에 대한 다양한 견해는 결국 한 가지를 말하고 있다고 하였다.<sup>8)</sup> '主一無適', '整齊嚴肅', '常惺惺法', '勿忘勿助'를 덧붙여 퇴계 경학과 그 실천에 있어 행태 특성을 살펴보겠다.

7)Ibid

8)前賢들이 말한 경에 대한 풀이인 성학십도의 第4 '대학도(大學圖)'의 주자의 '경의 四條說'에 거론한 三先生의 敬의 '사조설(四條說)'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이는 程伊川이 말한 '主一無適', '整齊嚴肅', 謝上蔡이 말한 '常惺惺法' 및 尹和靖이 말한 '其心收斂不容一物'을 말한다. 퇴계 경학의 실천 공부는 이 내용들을 설명하면 자연스럽게 밝혀질 수 있으나 尹和靖의 '其心收斂不容一物'은 사실 '主一은 敬이라고 말한 정이천의 설명을 다시 되풀이 한 것에 지나지 않음으로 이것을 제외하고 퇴계가 강조한 勿忘勿助를 덧붙여 살펴보았다. 양승무, 퇴계의 경학사상과 21세기, 퇴계학보 107.8, 2000.12

<표 3> 실천공부와 행태 특성

	의미	행태 특성
정제엄숙 (整齊嚴肅)	'몸가짐을 가지런히 하고, 마음을 엄숙하게 함으로써 내재적인心까지 하나로 統一시킬 수 있다'	외적 단속, 단정한 용모, 정중한 행동거지, 평상시의 행동에 있어서 정제엄숙의 실천을 지속하면 자연히 心의 理法에 익숙해지고 순일해서 인간의 본성을 실현시킬 수 있음
주일무적 (主一無適)	'心이 한 가지 일에 집중하여 다른 곳으로 흩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당면한 하나의 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그 일에 전심전력하는 것 한 가지에 집중하여 일하나 집착하지 말 것 착의하는 것도 아니고 착의하지 않는 것도 아닌 가운데 보살피기를 잊지 말아야함 자유를 잃어버린 얽매이는 마음상태가 아닌 자연스런 마음의 정신상태로 행해야함
상성성법 (常惺惺法)	항상 깨어있음을 말한 것으로 '항상 경계하여 깨닫는 각성상태'	心이 항상 맑게 깨어있는 것, 항성성하면 心體는 自存하며 四肢는 恭謹해지는 경지
물망물조 (勿忘勿助)	'勿忘'이란 '그 일을 잊지 않고 마음속으로 간직함을 말하는 것이며, '勿助'란 助長, 즉 '無理하지말라'는 뜻	때를 따르고 일을 쫓아 힘써 잘 처리해나가는 功을 쌓되 잊지 말고 조장하지 않음 持敬을 하는 데에 있어서 放逸하면 잃어버림을 면하지 못하게 되고, 지나치게 무리하여 성취하려고 한다면 조장을 면하지 못함 마음의 방일함과 무리한 집착을 피함

敬사상의 내용을 살펴보면 실생활에 있어 그 정신을 실천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며 그 자세에 관해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장을 통해 퇴계 경학의 실천공부인 整齊嚴肅, 主一無適, 常惺惺法, 勿忘勿助가 도산서당이라는 물리적 공간에 공간 행태적으로 어떻게 대응하여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

### 3. '敬'사상을 통한 도산서당 공간 분석

#### 3.1. 도산서당 건립 배경

퇴계는 61세 되던 해 鄉里인 도산으로 돌아가 도산서당을 짓는다. 벼슬을 물리고 고향으로 간 배경에는 건강상의 이유 외에도 당시 사회적 상황 등을 원인으로 볼 수 있다. 1498년 戊午士禍, 1519년 己卯士禍, 1545년 乙巳士禍에서 퇴계의 넷째 형이 희생되고 자신도 관직을 박탈당하는 일이 있었다.

儒者가 관직에 나아가갈 때에는 立身出世의 개인적인 차원 뿐만 아니라, 道義를 실현해야한다는 사명이 있다.<sup>9)</sup> 퇴계는 자신의 수양함이 모자라 학문이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을 때 함부로 관직에 나아가 세상을 經綸해서는 안되고, 설사 등용된다 하더라도 자신의 뜻을 펼 수 있는지 헤아림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다.<sup>10)</sup> 도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정치적 상황이 되면 물러나 은둔하여 도를 실천하면서 다시 천하에 도의를 실현 할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자기 당대에 그 때가 오지 않으면 현인들

은 수양을 하고 학문을 가르치고 의리를 강명함으로써 후세에 도를 전하고자 하였다. 태평성대에 훌륭한 임금을 만나 천하를 경륜하는 것도, 난세에 물러나 도의를 萬世에 전해야 하는 것도 모두 유가의 理想으로 서당을 지어 제자들을 가르치고 서원을 건립을 통해 尊賢講道를 강조해 온 퇴계에게서도 儒者의 정치에 대한 실천 정신을 알 수 있다.

퇴계가 서원 건립을 지지하면서 1549년 백운동서원에 사액을 내려줄 것을 청하는 서신의 부분에는

“...중국에서 이처럼 서원을 높임은 무슨 이유 입니까, 은거하여 뜻을 구하는 선비들은 도를 강명하고 사업을 익히는 倫序(윤서)에, 대체로 이들은 세간에서 시끄럽게 경쟁하여 다투는 것을 싫어하여, 典籍를 읽어지고 넓고 한가한 들판이나 물가로 피하여 물러나, 先王의 도를 노래하고 읊습니다. 고요히 천하의 義理를 살피면서 德을 쌓고 仁을 몸에 익혀, 이것으로 즐거움을 삼습니다. 따라서 즐겨 서원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國學이나 鄕校가 사람이 많이 모이는 城廓(성곽) 가운데 있어 앞으로는 學습에 구애 받고 뒤로는 異物에 마음이 옮겨가고 빼앗기는 것과 비교해보면 그 功效가 어찌 같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sup>11)</sup>

라며 당시 교육기관과 비교하여 서원의 효용성을 언급하고 있다. 도시 한가운데서 공부에 집중하기에는 여러 가지 유혹이 많아 마음이 분산되고 동요하기 쉬우므로 학문을 함에 있어 산림 속에서의 정제엄숙, 무일무적, 상성성, 물망물조의 '敬'의 태도를 지향하고 있다.

후학을 양성하고자하는 유가로서의 실천적 場인 도산서당은 태생부터가 '경'사상의 실천 공간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건립 배경에서 보이는 '敬'사상과 공간관계성

건립배경	공간의 목적	공간의 성격	행태
당시 시대적 상황, 후학 양성을 위한 교육 공간 필요	유가의 이상 실천 은거·수신 후학 양성	敬의 실천 공간 주일무적, 정제엄숙 상성성, 물망물조	독서 사색 강학 교육 유식

#### 3.2. 도산서당 입지

도산서당은 현재 경북 안동시 도산면 토계리에 위치하고 있다. 퇴계가 주변 사람에게 보낸 편지에는 도산에 터를 얻은 일에 대해 “만년의 다행한 일”이라며 장소에 대한 만족감을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퇴계가 벼슬을 사양한 뒤 처음 말년의 은신처로 자리 잡은 곳은 계상서당으로, 배움을 간청하는 이들을 위한 강학 공간이었다. 도산잡영에서는 “내가 계상에 터를 잡고 시냇가에 두어 칸 집을 엮어서 서책을 간직하고 심성을 기르는 곳으로 삼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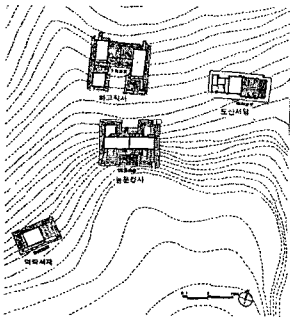
9)박양자, 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83(94.9) p.35

10)“선비가 세상에 태어나 출세를 하거나 못하거나, 때를 만나거나 만나지 못하거나 간에 오직 몸을 깨끗이 하고 道義를 행할 뿐이며, 禍福은 논하지 않는다. 일찍이 우리 동방의 선비들 가운데 道義에 뜻을 두고 사모 하면서도 세상 환란에 걸려드는 일이 있었는데, 이는 그 원인이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학문이 아직 지극한 곳에 이르지 못했는데도 자처함이 지나치게 높고, 때를 헤아리지 못하면서도 세상을 經綸하는데는 용감했기 때문이다.”

11)박양자, 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83(9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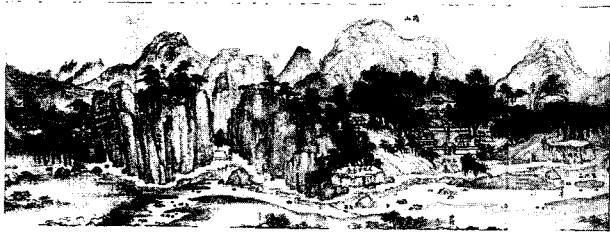
다. 그런데 이미 세 번이나 이사를 하게 되어 갑자기 비바람에 무너지기도 하고 또 계상은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치우쳐있어 마음을 넓히기에 알맞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다.

敬의 측면에서 공부란 마음을 넓히기 위한 것으로 ‘너무나 고요하고 적막한 곳에 치우쳐’있는 곳은 수양하기에 적당한 행태를 지원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계상서당에서 강학의 공간으로서 적합한 다른 장소를 찾아 지은 것이 바로 도산서당이다.



<그림 1> 퇴계 장건 당시 도산서당 일곽 추정도<sup>12)</sup>

도산잡영의 도산서당 입지에 관한 기술을 통해 강학 공간으로써 ‘敬’에 적합한 행태를 지원하는 입지에 관한 퇴계의 생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림 2> 허주 이징(1581~?)의 도산서원 부분도

“영지산 한 가지가 동으로 뻗어내려 도산이 되었다... 산이 그다지 높거나 크진 않으나 그 골짜기가 휘연하고 형세가 꿇인 듯하고, 또 그 낮은 위치가 외치지 않았으므로 곁에 있는 봉우리와 멧부리와 시내와 동학이 모두를 이 산을 향하여 팔팔끼고 읍하며 감싸 돌아 산 것 같았었다.

산이 그 왼편에 있는 것을 동취봉이라 하고 오른편에 있는 것을 서취봉이라 이름하였는데, ... 동취봉과 서취봉이 서로 바라보면서 남으로 달리되 굽어 감돌아 팔구리쯤 되어서 동에서 온 것은 서로 돌고 서에서 온 것은 동으로 들어 남쪽 들판 아득한 곳에서 합세하게 되었다.

물이 이 산의 뒤에 있는 것을 퇴계라 하고, 남에 있는 것을 낙천이라 하였으며 시냇물이 메의 북을 둘러서 발꿈에 이르러 넓고 맑고 쌓이고 출렁거리며 몇 리 사이를 오르내려 보면 그 깊이가 가히 배를 저울 수 있으며, 금빛 모래와 흰 자갈이 깔리고 맑고 깨끗하고 푸르고 차가우니, 이것이 이른바 탁영담이다.... 중략...

또 퇴계는 짝지기도 고요하기는 하나 금회를 밝게 하고 넓힘에는 알맞지 못하기에 다시금 옮길 것을 생각하여 메 남쪽에서 이 땅을 발견하였다. 이에 작은 동학 하나가 있으니, 앞으로는 낙강가를 굽어 그윽도 하고 고요도하고 멀기도하고 넓기도 할 뿐더러 바위와 멧부리가 밝고 돌샘이 달고 차가우니, 선비가 수양할 곳에 알맞게 되었다.”<sup>13)</sup>

이상에서 퇴계가 선택한 도산서당의 입지는

1) 동취봉과 서취봉이 아늑하게 둘러싸여 있고 앞으로는 맑은 물이 흐르는 전통적 배산임수 배치로써 산세(山勢)와 수세(水勢)가 합당하며 조망이 개방되어있고 외치지 않은 곳,

2) 낙강가를 굽어 그윽도 하고 고요도하고 멀기도하고 넓기도 할뿐더러 바위와 멧부리가 밝고 돌샘이 달고 차가운, 선비가 수양하기에 알맞은 곳이다. 퇴계가 도산서당의 입지로 산수가 수려한 곳을 찾았다는 사실은 문봉(文峰) 정유일(鄭惟一, 1533~1576)<sup>14)</sup>과 퇴계의 시<sup>15)</sup>를 통해 알 수 있다.

퇴계는 평생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 되기를 추구하였다. 거경과 공리의 수양을 쌓아야만 인간이 절대선인 천리를 체득하여 도덕적 가치를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 퇴계 敬철학의 요점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 때문에 도산서당이 자리한 자연이 거경과 공리를 위한 적합한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가.

자연은 넓게 보면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동물, 식물, 무생물 등 모든 사물의 세계로, 이러한 모든 사물의 존재와 그 존재의 무대가 되는 時, 空의 운행 질서라 할 수 있다. 성리학적 세계관에서는 인간과 자연은 태극이라는 하나의 ‘理’로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의 理와 인간의 理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그런데 인간의 理, 즉 선한 본성은 기질지성에 의해 악으로 흐를 수도 있는 반면에 자연의 이는 자연현상을 통해 드러난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연에서 질서 있는 변화를 보며 천리를 배우고 거경 공리의 수양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작은 골짜기가 있어 앞으로는 낙강가를 굽어 그윽도 하고 고요도하고 멀기도 하고 넓기도 할뿐더러 바위와 멧부리가 밝고 돌샘이 달고 차가운 도산”에 거처하면서 주위자연으로부터 거경의 이치를 깨닫는 것이다.<sup>16)</sup>그에게 있어 자연은 도를 발견하는 修道의 자리였으며,

13) 퇴계전집, 권3, 도산잡영, pp.281~282

14) 정유일은 “퇴계는 산수를 좋아하였다. 중년에 퇴계 위로 이사를 한 것도, 그 골짜기가 그윽하고 숲이 깊으며, 물은 맑고 돌이 깨끗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퇴계를 회상함 이상해, 퇴계의 서원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15) 푸른 안개 낀 저 산 밖에 땅을 사서

맑은 시냇물 곁으로 옮겨 사노라

깊이 사랑하는 것은 오직 물과 돌이요

크게 관상하는 것은 다만 솔과 대이랴.

고요한 속에서는 때때로 일어나는 감흥을 살피고

한가한 겨울에는 지난날의 향기로운 말쑼을 읽노라

16) 송재소,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

12) 김봉렬, 도산서원\_ 최소의 구조·최대의 건축, 이상건축 97.2

바로 이러한 깊은 자연은 그 자신의 심신을 맑게 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공간이다.<sup>17)</sup>

<표 5> 도산서당 입지에서 보이는 '敬'사상과 공간관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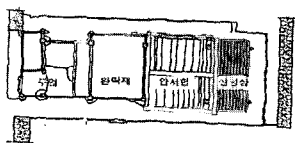
입지	행태 지원	교육 효과
변화한 곳에서 떨어진 포근하고 아늑하나 외치지 않은 곳,	산림이 피로한 심신을 맑게 해줌 마음을 한가히 해줌	정제업숙 주일무적 상성성법 돌망돌조
산세와 수세가 적합하여 심신을 수양할 수 있는 자연 환경,	한 가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함	
전면이 트여 자연을 충분히 조망할 수 있는 곳	감정을 차분히 가라앉혀줌 생각을 침잠할 수 있게 해줌	
		敬의 실천공부

### 3.3. 도산서당 공간 분석

퇴계는 서당은 물론 주위에 자연물이거나 약간의 인공을 가미한 자연물들에도 修道와 관련하여 일정한 도학적 함의를 가진 명칭을 붙여주었다. 이런 명칭은 고사에서 이름을 가져온 것으로 알려진 역사적 사실을 통해 성현의 모습을 본 받아 생활 주변에서 이치를 깨닫고자하는 敬의 자세라고 하겠다. '의미'를 지닌 상징적인 요소를 통해 건축과 공간이 어떻게 완성되고 있는 지 행태적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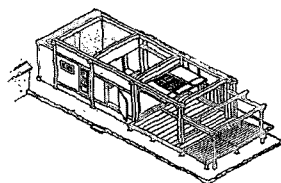
<표 6> 도산서당 공간 명칭과 의미

명칭	의미	행태
도산서당 陶山書堂	"순임금도 그릇(陶)구어 안락을 누리었고 도연명도 농사를 지어 얼굴이 흐뭇했네 성현의 심사를 내 어찌 체득하리 늘그막에 돌아와 고반을 맛보노라" 도산서당은 완락재와 암서헌을 포함하는 전체 초당의 이름. 陶山이 절그릇을 굽던 가마가 있던 산이란 뜻 외에, 혼탁한 세상에 관직에서 물러나 은거한 성현이 그릇을 굽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안락을 누리 고 얼굴이 흐뭇하였다는 점을 본받고자 한 뜻이 있음	은거 수양 유식
완락재 玩樂齋	공경을 주장해도 집의 공부 중요름네 웃고 들지 않고도 점차로 융통하리 염계의 태극도에 묘한 경계 알고 보니 천추에 이 기쁨 같은 것을 알았노라 주희의 명당실기名堂實記 에"(중용과 대학의 오묘한 뜻을) 완상하여 즐기니, 족히 여기서 평생토록 지내도 싫지 않겠다."는 말에서 취함	정제업숙 주일무적 상성성 독서 생활공간
암서헌 巖樓軒	증자는 안연더러 실악허라 칭했는데 병산이 처음으로 회옹을 끌어 깨우쳤네 늘그막에 알았도다, 산속에 깃들인 뜻을 박약(博約), 연빙(淵冰) 스스로 소홀 할까 두렵구려 암서헌은 朱의 시 운곡 雲谷 '스스로 믿으려도 오랫동안 못했기 때문 에 바위에 깃들어서 약간 효과를 바라노라'라는 말에서 취해 이름 붙임 <sup>18)</sup> 주자의 가르침을 따르고 증자와 안연의 생활자세를 본 받겠다는 것 <sup>19)</sup>	상성성. 강학 교육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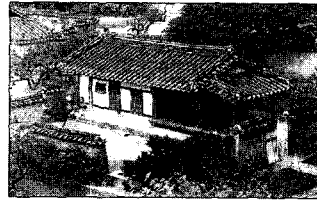


확장된 공간 면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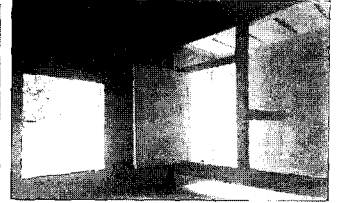
<그림 3> 도산서당 평면도



<그림 4> 도산서당 엑소노메트릭 - 김동욱



<사진 1> 도산서당 전경<sup>20)</sup>



<사진 2> 완락재 내부 사진

도산서당은 정면 세칸, 측면 한칸 건물로서 기둥간격들을 다르게 잡아 모든 칸의 길이가 다르며 서쪽부터 차례로 부엌, 방, 부엌, 완락재, 암서헌, 살평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엌-방에 불을 때우고 물을 마시기 위한 간단한 차를 끓이 기도 하는 여러 목적을 두었다고 볼 수 있다.<sup>21)</sup>

완락재는 온돌방으로 퇴계의 침실이자 주 생활 공간이다. 부엌쪽과 방 뒤쪽으로 각각 벽을 내밀어 1.2자정도 공간을 확장 하였다. 도산서당의 확장된 부분의 뒷기둥들은 본기둥과 마찬가지로 두꺼운 정식의 기둥을 사용했다. 따라서 비록 칸은 좁지만 정식의 뒷간이 된 것을 의미한다.

온돌방이 있는 실내는 서북쪽에 서가를 두고 서쪽은 벽 바깥으로 벽장을 두고 실내 절반을 침실로 사용하였다. <도산서당영건기>중에 서당 안 좌우에 천 여 권의 서책을 두고, 화분, 책상, 연갑, 지팡이, 침구, 돛자리, 향로, 혼천의 하나씩을 남쪽 벽 근처에 두었으며 후벽을 가로지른 칸에는 옷상자와 편지 보관함을 두었고 이밖에 다른 물건은 없었다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선비가 학문에 전념하는 데에 필요한 가재 도구 이외에 아무것도 가식되어 있지 않은 절제된 실내 분위기는 정제업숙과 주일무적의 공간으로 개인서재 겸 생활공간으로써 독서와 사색, 자기수양에 적합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

온돌방인 완락재와 대청인 암서헌 사이에는 삼분합 들문을 달아 문을 닫으면 두공간이 분리되고 문을 열어 들어올리면 두공간이 하나의 공간으로 트이게 하였다. 북동서쪽에 서로 다른 크기의 뒷간을 달아서 외연적으로 확장했다면, 내부의 칸막이 벽들은 이동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여 내부공간의 확장 또한 시도 하였다.

퇴계가 이문량에게 보내는 편지에 의하면 마루 한칸은 정남향으로 향하여 예를 행하는데 편하게 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여기서 보아 마루는 예를 행하는 중요한 장소로 설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자연으로까지 서당 공간을 확장하여 심신을 수양하고자 함이었다.

암서헌은 마루쪽으로 한칸을 늘려 가적지붕까지 달았지만 정식공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하고 있다. 본체는 사각기둥을 사용하였지만 마루부분에는 보다 가는 팔모기둥을 세웠다. 마루 또한 청판사이가 떨어져 바닥이 내려다보이는 줄마루로 만들어져 있다. 이는 정식 대청이 아니라는 구별을 의미한다. 살

17)퇴계의 신체적인 병 또한 벼슬에서 물러난 이유 중 하나였다.

18)권오봉

19)송재소,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

20)이후 모든 사진 자료는 '도산서원'을 참고하였음

21)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학회지 제5권 1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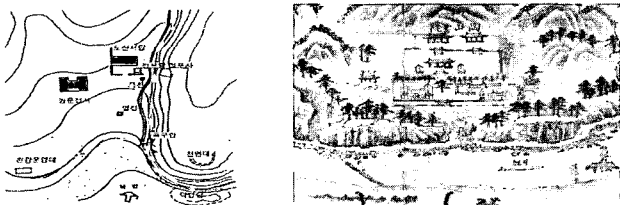
평상을 덧대고 대청마루를 기둥 밖으로 나가게 공간을 확장하여 동쪽 언덕 넘어 자연과 통하게 하였다. 3면의 퇴를 통해 공간을 효과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도산서당의 공간을 보면 '삼칸제도(三間之制)'에 근거하였으나 완전한 삼칸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도산서당의 공간적 확장의 변화는 일차적으로 이덕홍의 조부의 집에서 감명을 받은 퇴계의 고안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sup>22)</sup>

선비들의 학문의 장소는 16세기에 3칸 규모에 마루와 온돌방을 갖춘 하나의 고유한 양식으로 자리잡았다.<sup>23)</sup> 삼칸은 매우 간소하여 선비가 학문을 탐구하고 휴식을 취하는데 최소한의 공간이면서 또한 더 이상의 크기가 필요하지 않은 충분한 공간이기도 했다. 따라서 퇴계는 본래의 삼칸의 형식을 유지하면서 실생활의 목적에 적합하도록 마루 등을 덧대어 실내 공간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또한 서당 주변에 인공적인 시설을 가미하고, 서당을 둘러싼 자연물 여기저기에 서당과 연관된 이름을 부여함으로써 주변 자연을 건축에 끌어들이어 서당을 실제적으로나 개념적으로 무한한 크기로 확장 시키고 있다.

최소한의 공간으로 정제엄숙과 주일무적의 공간임을 자처하면서도 공간의 확장은 필요에 의해서는 변형 할 수도 있다는 퇴계의 자유로운 생각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는 노력은 하되 집착하지 않는 경의 실천 자세로 整齊嚴肅, 主一無適, 常惺惺法, 勿忘勿助의 행태를 지원하는 서당을 만들고자 한 것이다.

### 3.4. 도산서당 외부 공간



<그림 5> 월탄 김창석(1652~1720) 도산서원 부분도

<표 7> 행태 장치(behavior setting)로서의 도산서당 외부 공간

행태장치	명칭의 의미	행태
정우당 淨友堂	도산서당 앞마당에 있는 연못. 퇴계가 염계(濂溪) 주돈이(周敦頤, 1017~1073)의 『연설』에서 영향을 받아 연꽃을 심었다.	연꽃과 같이 욕심은 비우고 곧은 자세로 남을 의지하지 아니한 고아한 인품으로 생활하고자 함

22) 정기철, p.290, 덕홍의 조부의 천사(川沙)에 있던 집은 기울어진 사람 한칸이 손님을 접대하기에 충분치 못했으므로, 띠뿔을 엮어 비를 가리고, 판자를 붙여 마루를 넓혔다. 선생이 보고 배양 그 겸소함을 감탄하며 한서암과 암서헌은 모두 이 방법을 따랐으며, 구택(舊宅)도 역시 그렇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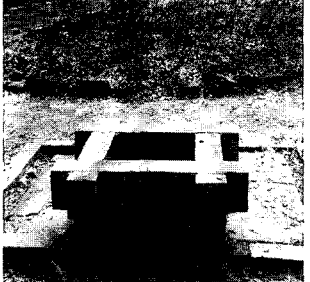
23) Ibid

<표 7> 행태 장치(behavior setting)로서의 도산서당 외부 공간

행태장치	명칭의 의미	행태
몽천 蒙泉	정우당의 동쪽 개울 건너 절우사 아래에 있는 산기슭에서 솟아나는 샘. 샘물이 고요하여 「몽괘蒙卦」를 연상하고 몽천으로 이름을 지었다. '어린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다.'의 뜻을 가지고 있다.	어린 제자를 바르게 가르치기 위해 끊임없이 덕을 기르는 수양의 자세를 지니고자 함.
절우사 節友社	다리 건너 비탈진 산에 매화, 소나무, 대나무, 국화 사군자를 심어놓고 이를 절우사(節友社)라 하였다.	사군자는 아름다운 것을 보고 심신의 평온을 얻는 것 뿐 아니라 修身의 의미를 띠는 미적 장치들을 옆에 두고 늘 삼가는 것(謹獨)으로 명도(明道)가 되는 공간의 교화를 세우고자 함 <sup>24)</sup>
유정문 幽貞門	원락재에서 남쪽으로 난 방문을 열면 바로 보이는 문으로 『주역』 「이괘(履卦)」의 "도를 실천하는 길이 탄탄하니, 숨은 선비가 마음을 굳고 바르게 가지면 길하리라"에서 취하였다. 속세와의 경계를 의미.	문을 들어서 속세의 잡념 없이 도를 구하고자 함. 성찰의 공간으로서 도산서당의 의미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명칭이며 조형물임.
천연대 天淵臺	서원을 중심으로 강가 동쪽이 천연대이다. 명칭은 시경의 "연비려천 어약우연"(술개는 하늘로 높이 날고 고기는 연못에서 뛰는 데에서 취한 것이다. 술개는 하늘에서만 날고 물고기는 연못에서만 뛰는 것이 당연한 이치로 마찬가지로 임금의 마땅히 어질어야 하고 신하는 마땅히 공경해야하며 아비는 마땅히 자애로워야하고 자식은 마땅히 효도해야한다는 뜻이다.	'도덕적 가치를 충분히 실천하는 인간'이 되고자 술개와 물고기와 같은 려의 작용대로 순환하는 자연물처럼 미리 기대함이 없고 잊어버리거나 조장하지 않는 태도를 통해 <sup>25)</sup> 천리의 모용을 깨치고자 함.
천광운영대 天光雲影臺	서원을 중심으로 강가 서쪽이 천광운영대이다. 천광운영은 주자의 시 중 관서유감(觀書有感)에 나오는 "반이랑 모란 연못, 거울이 열려/ 하늘 빛 구름 그림자, 함께 배회 하네"에서 취한 것이다.	관서유감에 나타난 주자의 뜻을 체득하기 위함.
곡구암 谷口巖	곡구암은 직역하면 계곡 입구의 표석을 뜻하지만 漢書에 나오는 고사성어인 耕於谷(에서 의미를 가져왔다고 유추한다. 한나라 정박이 곡구에 살면서 밭을 갈았는데 대장군 왕봉이 예로 초빙해도 응하지 않았다는 고사의 의미	세속의 명예를 탐하지 말고 향촌에서 자신을 수양하고 도학연구에 힘쓰고자 함.

24) 김개천, 도산서당과 전교당, 불교신문

25) 김성일

행태장치	명칭의 의미	행태
반타석	퇴계가 반타석에 관해 지은 시 누런 탁류 넘실댈면 형체를 숨기더니 물결이 가라앉자 분명히 나타나네 아름답대! 차고 받는 물살 속에도 천고의 반타석은 구르지 않네 “반타석은 .. 매양 큰비가 내려 물이 붉으면 소용돌이와 함께 물밑으로 들어갔다 물이 빠지고 맑아진 뒤에야 비로소 그 모습을 드러낸다”	탁영담 속의 반타석이 물에 잠기는 것은 큰비가 내려 누런 탁류가 흐를 때로, 다시 물이 줄고 맑아지면 다시 모습을 드러냄. 이것은 퇴계를 비롯한 선비들의 처신을 상징. ‘누런탁류’처럼 혼탁한 정쟁이 소용돌이 칠 때는 몸을 숨겼다 그것이 지나가고 맑아지면 다시 나타난다는 것. 또한 세상이 아무리 혼탁해도 흔들리지 않고 깨끗이 지킬 바를 지키겠다는 퇴계 자신의 의지를 나타냄.
열정 계井	퇴계가 열정에 관해 지은 시 “한 바가지의 물로 샘과 내가 서로의 마음을 열었네.” 	우물은 마음이 떠나도 옮겨가지 못하며, 길어도 줄지 않고, 오가는 사람 모두가 즐겨 길어 마심. 이처럼 사람들이 주인 없는 무궁한 지식의 샘물을 두레박으로 길어 마시듯 자기 노력으로 지식과 인격을 쌓아 누구나 즐겨 마실 수 있는 샘물같이 사회에 꼭 필요한 인물이 되라는 뜻.

퇴계는 옛 선현의 말이나 고사에서 취한 명칭을 부여한 주변 자연환경을 통해 도산서당 일대를 修道의 장소로 꾸미려 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일상의 생활 장소 곳곳에 의미를 부여하는 공간적 장치를 통해 자신을 수양하는 敬의 자세에 맞는 생활을 하고자 함이었다.

한가한 뜨락 가는 풀이  
 조화로 듣고 뜰네  
 얼핏 봐도 道가 들어  
 그 의사 이와 같네  
 딸의 풀과 그 의사 한가지거니  
 뉘 능히 은미한 뜻 헤아리리오  
 그림. 글에 天機가 드러났으니  
 다만 마음 갈가라앉힘에 달려 있다오

서당 외곽의 자연물과 인공을 가미한 자연물에 이름을 지어 줌으로서 단순한 돌이나 흙에서 벗어나 하나의 의미를 가진 실체로 사람들에게 의미를 전달하게 된다. 도산에 거쳐하면서 주위자연으로부터 심오한 이치를 깨닫고자 한 공간 장치(behavior setting)인 것이다.

### 3.5. 도산서당에서의 생활

도산잡영에서 퇴계가 노래한 서당 주변의 경승은 이리하다.

“문밖 오솔길은 시내를 따라 내려가 마을 어귀에 이르면, 양쪽 산기슭이 마주 대하여 있다. 그 동쪽 기슭 옆에 바위를 부수고 터를 쌓으면 조그만 정자를 지을 만한데, 힘이 모자라서 만들지 못하고 다만 그 자리만 남겨두었다. 마치 산문(山門)과 같이 이름을 곡구암(谷口巖)이라 하였다. 여기서 동으로 몇 걸음

나가면 산기슭이 끊어지고 탁영담(濯纒潭)에 이르는데 그 위에는 큰 돌이 마치 깎아 세운 듯 서서 여러 층으로 포개진 것이 10여 길은 될 것이다. 그 위를 쌓아 대를 만들고, 우거진 소나무는 해를 가리며, 위로 하늘과 밑으로 들에는 새와 고기가 날고 뛰며, 좌우 취병산의 물에 비친 그림자가 흔들거려, 강산의 훌륭한 경치를 한눈에 대 볼 수 있으니, 이름을 천연대(天淵臺)라 한다. 그 서쪽 기슭 역시 이것을 본떠서 대를 쌓고 이름을 천광운영(天光雲影)이라 하였으니, 그 훌륭한 경치는 천연대 못지않았다. 반타석은 탁영담 가운데 있다. 그 모양이 반타(盤陀: 편편한 것)하여 배를 매어 두고 술잔을 서로 전할 만 하며, 큰 홍수를 만날 때면 물 속에 들어갔다 물이 빠지고 물결이 맑은 뒤에야 비로소 드러난다.”

퇴계가 조영한 도산서당은 암서헌, 절우사, 유정문, 천연대등으로 이어지는, 자연과 함께 하는 공간이었다. “봄에는 산새가 즐거이 울고, 여름에는 초목이 우거져 무성하며, 가을에는 바람과 서리가 차갑고, 겨울에는 눈과 달이 서로 얼어 빛나며, 사철의 경치가 서로 틀리니 흥취 또한 끝이 없는” 이곳에서 속세의 혼란과 유혹에서 벗어나 대자연 속에서 사물의 근원을 꿰하고 이치를 궁구하였던 것이다.

<표 8> 도산서당 행태지원

행태지원	사색, 은거, 수신, 강학, 독서, 유식	거경거리 이륙
------	------------------------	---------

도산서당의 주변에는 작은 연못과 울타리, 그리고 매난국죽을 심을 수 있는 작은 臺를 갖추고 싸리문을 만들어 이것으로 서당을 감싸는 외부 시설이 생겨났다.<sup>26)</sup> 도산서당은 단순한 3칸 건물이라 아닌 외부환경으로 공간적인 확장이 되었다.

敬을 위한 공간적 확장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퇴계는 서당과 서당 주변의 이들 인공물과 자연물을 두고 18절 7언시와 이어 다시 5언 잡영 26절을 지었다. 18절 7언시가 대부분 무생물인 물체들을 대상으로 삼았다면 26절 5언시는 식물이나 서당 주변 사람들의 생활과 관련된 주제로 서당을 둘러싼 인문적 자연적 요소들을 다루고 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그 건물 자체로만 인식하지 않고 건물을 둘러싼 인공적, 인문적, 자연적 제반 요소의 총체로 인식하였다고 생각된다.<sup>27)</sup> 도산서당이 修道를 행하는 실천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건물을 둘러싼 제반 요소 또한 敬의 공간이어야 하기 때문으로. 곳곳에 도를 실천하는 장치를 두고 거경과 궁리를 추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도산기에는 도산에서의 일상생활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26)도산잡영 “당의 동쪽으로 치우친 곳에 작고 네모난 못을 파고, 거기에 연(蓮)을 심어 정우당(淨友塘)이라고 했으며, 또 그 동쪽에 몽천(蒙泉)이란 샘을 만들었다. 1561년 3월에는 샘위의 산기슭을 파서 암서헌과 마주보게 평평한 단을 쌓아 그 위에 매화, 대나무, 소나무, 국화를 심어 절우사라고 불렀다. 퇴계는 서당 앞을 출입하는 곳을 막아 싸리문을 만들고 유정문(幽貞門)이라 이름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27)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학회지 제5권 1호

“나는 항상 쌓인 병에 얽혀 고통을 당하고 있어서 비록 산에 거처한다해도 마음대로 글을 읽지 못한다. 깊은 근심을 참고서 調息을 하고 나면 이따금 신체가 가볍고 편안해지며 심신이 쇠락하여 우주를 굽어보고 우러러보면 감개가 이어진다. 그러면 현에 이르러 연못을 구경하고 단에 올라 절우사를 찾기도 하고 채마밭을 돌아 약초를 옮겨 심고 숲을 뒤져 꽃을 따기도 한다. 혹은 바위에 앉아 샘물을 튀기고 대에 올라 구름을 바라보기도 하고 혹은 낚시터에서 고기를 바라보고 배안에서 갈매기와 친하여 지기도 한다.

이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가서 이리저리 거닐다 보면 눈길 닿는 대로 흥이 일고 경치를 만나면 흥취가 생기는데 흥이 다해 돌아오면 온 집이 고요하고 도서는 벽에 가득하다. 책상 앞에 묵묵히 앉아 공경하고 존양하고 연구하고 사색하여 왕왕 마음에 깨달음이 있으면 문득 기뻐서 밥먹는 것도 잊었다.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친구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래도 터득하지 못하면 憤懣하면서도 오히려 감히 억지로 통하려 하지 않고 잠시 한쪽에 두었다가 때때로 다시 꼬집어내어 마음을 비우고 생각하고 풀어보면서 스스로 이해되기를 기다린다. 오늘도 이렇게 하고 내일도 또 그렇게 할 것이다.

퇴계가 도산에서 생활하는 모습은 지경의 자세가 그대로 몸에 배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완락제에서는 周子の 태극론을 완상하며 즐긴 朱子를 본받아야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하며, 암서헌에서는 주자가 운곡에 은거한 지취를 생각하고, 천연대에 올라서 “술개는 날아 하늘에 이르고 / 고기는 연못서 뛰노네”라는 시경의 구절이 어찌서 천리의 묘용을 암시하는가를 깊이 사색하고 천광운영대에 이르러서는 주자의 관서유감시의 심오한 비유가 지시하는 참뜻을 거듭 깨우친다. 곡구문을 지나면서 한나라 때의 은자인 정자진으로부터 참된 은거의 뜻을 배운다. 정우당 앞에서는 연꽃을 바라보며 周濂溪를 생각하고 절우사에서는 소나무, 국화, 대나무, 매화의 절개를 가슴속에 새기는 것이다.<sup>28)</sup> 퇴계는 이렇듯 도산서당을 둘러싼 보이고 생활하는 범위내의 모든 것을 자신의 敬사상을 실천하기 위한 공간으로 삼고 그 안에서 敬사상을 실천하였다.

#### 4. 결론

퇴계는 조선중기 대표적인 성리학자로 도산서당은 퇴계가 직접 대지를 마련하고 설계하고 조영한 곳이다. 후학을 가르치기 위해 마련한 도산서당은 퇴계의 ‘敬’ 사상이 투영된 공간이라는 가설을 세울 수 있다. 敬사상 자체가 실생활에서의 실천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도산서당도 이를 잘 지원해줄 수 있고자 하였을 것이다. 서당과 경사상 간의 상관성은 의미와 구조, 실생활 등을 기록한 데에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퇴계가 관직에서 물러나 산림에 은거하여 후학을 위해

도산서당을 지은 것 자체가 유가로서의 이상을 실천하기 위함이었다. 도산의 입지가 도시에서 벗어나 산림에 도산서당을 위치함으로써 자연의 이치를 궁리하고 자신을 居敬하는 데에 적합한 자연 환경을 가진 입지인 것을 살펴보았다.

퇴계가 서당 내, 방과 마루서부터 외부 인공물, 주변 자연물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이름을 붙인 것도 자신의 주변을 자신이 본받고자하는 상황으로 만들어 정제엄숙(整齊嚴肅), 주일무적(主一無適), 상성성법(常惺惺法), 물망물조(勿忘勿助)의 생활 속 실천을 통해 거경과 궁리를 추구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삼간의 제도를 지키면서도 삼간 안에서 변화를 통한 확장을 통해 정제엄숙과 주일무적, 물망물조의 강학공간을 만들어내었다. 퇴계는 도산서당을 하나의 건물로 한정하지 않고 의미를 부여함으로써 주변 인문, 자연 환경의 외부 공간으로 확장하여 도산서당 주변 여건을 敬사상을 실천하는 修道의 공간으로 조성하는데 게을리 하지 않았다. 퇴계의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 구축된 도산서당은 퇴계의 ‘敬’ 사상이 충실히 투영된 공간이라 하겠다.

본 논문은 구체적 사례를 통해 한국 건축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하였다. 구축된 공간은 조영자(造營者)의 의도가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공간을 명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대적 배경, 사상적 배경, 조영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퇴계의 敬사상적 관점에서 도산 서당을 분석하여 본 것으로 다각도에서 공간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다양한 관점의 심층된 분석은 공간의 의도나 존재가치를 분명하게 하여 피상적으로만 해석되던 전통 공간에 대한 본질적 이해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다. 이후 도산서당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서원이나 서당 공간에서 선비들이 무엇을 추구하고자하였는지에 대한 ‘내용과 형식’의 측면에서 후속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박용재, 퇴계 이황의 ‘경’사상을 통한 도산서원 건축의 고찰, 동국대 석사논문, 2000
2. 이길재, 퇴계의 건축 실험과 조선 중기 이후 강당형식의 변화, 서울대 석사 논문, 2000
3. 김상협, 조선시대 서원 건축에 나타난 유식공간에 관한 연구, 명지대 석사논문, 2001
4. 정기철, 17세기 士林의 廟寢制 인식과 書院 영건,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 박사논문, 1999
5. 김봉렬, 도산서원\_최소의 구조·최대의 건축, 이상건축 97.2
6. 김동욱, 퇴계의 건축관과 도산서당, 건축역사연구학회지 제5권 1호
7. 양승무, 퇴계의 경학사상과 21세기, 퇴계학보 107.8, 2000.12
8. 박양자, 퇴계의 서원관, 퇴계학보 83(94.9)
9. 이상해, 퇴계의 서원건축관과 도산서당 및 도산서원 건축에 반영된 조영사상
10. 김개천, 도산서당과전교당, 불교신문
11. 송계소,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
12. 이우성, 도산서원, 도서출판 한길사, 2001
13. 이상해, 서원, 열화당, 1998
14. 김은중, 한국의 서원건축, 지문당, 1994
15. 권영걸, 도산서원 가상 수복기, 동연회 논총 제7호, 2000

<접수 : 2004. 8. 24>

28)송계소, 퇴계의 은거와 ‘도산잡영